

전남도, 은퇴도시 44곳 조성한다

대한상의서 한국건설경영협회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전라남도는 은퇴도시 후보지 4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원사 임원,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퇴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삼성, 현대, GS, 포스코건설 등 도급순위 상위 건설사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건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원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레저시설, 의료, 상업, 행정, 문화 등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 은퇴하신 분들이 꿈꾸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남 은퇴도시는 투자하는 기업들의 만족도 극대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첨단 복합도시로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정년퇴직 연령이 평균 55세인 점을

감안, 1950~60년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풍부한 일조량, 따뜻한 기온, 천혜의 자연경관, 낮은 지가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지난 2009년부터 은퇴도시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44개의 은퇴도시 후보지 중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시범단지 13세대를 지난해 11월 착공해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그동안 서울, 광주 등지에서 대대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 금융기관의 PF 문

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날 투자유치설명회를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0.5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명 79.3세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율 또한 1.15명에 그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29.2%, 2024년 43.8%로 정년퇴직 연령 평균 55세 전후라고 할 때 수명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 임박 등으로 은퇴한 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정영근)

경기뉴타운, 용적률을 높여 살린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안 발표



◇ 경기도가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도는 제2·3종 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씩 상향조정하고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추가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최대 24%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회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지난 26일 도청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율이 40%인 경우 약 4%, 45%인 경우 8% 용적률을 추가 적용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60㎡ 이하 소형주택을 40㎡ 이하, 40~50㎡, 50~60㎡로 세분해 40㎡ 이하에 더 가중치를 줬다. 이는 도가 소형 분양주택 건설 유도를 위해 평균비율 이상의 소형주택 계획시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번 발표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에도 동일하게 추가됐다. 도는 “서울시의 60㎡ 이하 주택 비율은 평균 29.8%이고 재정착률이 15.4%에 불과하지만 가재울1구역은 60㎡ 이하 주택 비율이 43%로 재정착률도 61%에 달했다”며 소형 분양주택을 많이 지으면 주민 재정착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정비 심의기준 완화에 따라 도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약 20~24%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회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 사업환경을 감안해 용적률을 상향하되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용적률 상향을 소형 분양주택 비율과 연계시켰다”며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주민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영배)

울진군, 「전통민속문화행사 평해남대천 단오제」

6월 5일, 평해남대천체육공원에서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오는 6월 5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진군 평해남대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전통 단오문화를 재현하고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잔치마당인 제28회 평해남대천 단오제 행사를 열 예정이다.

우리 선조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전통 단오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문화 자긍심 고취와 주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효(孝) 실천」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단오제는 울진군이 주최하고, 울진문화원과 평해읍청년회가 주관하여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였고, 주요 행사로는 제전제례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월송근줄당기기 시연과 평해읍 16개 리별 대항으로 씨름, 줄당기기,

웃놀이, 그네뛰기, 힘겨루기 대회 등 열띤 민속경기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펼쳐질 예정이고, 오후 2시부터는 한마당 뒤풀이로 지역출신가수 공연(최영학「내사랑울진」, 이마음「잡이된 사랑」, 전영근「여자가 뒈길래」, 각설이「춘향이」, 정희진국악원의 민요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 가선보이며, 무속제(별신굿), 창포머리감기, 단오음식(수리취떡) 나누기 등 전통민속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울진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평해남대천 단오제는 소통과 참여를 하도록 지역주민의 잔치 한마당이 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 F1코리아 그랑프리」성공기원 지원 나서

목포시 F1 범시민지원협의회

목포시 F1 범시민지원협의회가 「2011 F1코리아 그랑프리」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목포시 범시민지원협의회(회장 장성수)가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에서 회의를 갖고 F1대회 대비 시민친절·질서·청결 실천 운동 추진 계획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범시민지원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F1대회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목포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범시민 차원의 손님맞이를 위한 친절·질서·청결 운동 및 현대서비스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특히, F1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6월에는 ‘친절·질서·청결 캠페인 및 단체별 다짐대회’와 7~8월에는 ‘F1 성공개최 범시민 다짐대회’ 등을 적극 전개하고 10월에는 ‘F1대회 성공개최 축제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31일 F1대회 범시민지원협의회와 연계하여 범

시민 친절·질서·청결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하는 등 F1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교통·숙박·문화행사·홍보 등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F1대회 범시민지원협의회는 목포시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숙박·음식협회, 체육회, 관공협회 등 각계각층 단체 대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선진시민의 의식제고를 위해 자발적인 운동을 추진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목포 이석호)

목포시가 목포권의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코레일에 KTX-1 운행 및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잦은 고장으로 정비 및 안전확보를 위해 호남선 목포⇄용산구간 KTX-산천의 운행 증가와 KTX-1감축 운행으로 평일에는 1,000여석, 주말에는 350여석의 좌석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목포시가 코레일에 KTX-1 운행 및 운행횟수를 증가시

켜줄 것을 건의했다.

목포시는 이번 코레일의 감량으로 목포권(해남, 진도, 완도, 강진, 무안, 함평, 영암, 신안 등)열차일반이용객과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를 거쳐 제주, 홍도 등 섬 관광객 및 해남, 진도, 완도 등 내륙권 열차이용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KTX를 이용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운영 판매하고 있는 목포권 지역 여행사들도 가격 경쟁력 확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주말(금, 토, 일)은 931좌석인 KTX-1으로 운행 및 횟수를 증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코레일 KTX열차는 KTX-1(931석)과 KTX산천(363석), KTX산천(중련726석)이 운행되고 있는데 현재 목포⇄용산구간은 평일은 KTX-1 5대와 KTX-산천 6대가 운행되고 있다. 주말에는 KTX-1 7대와 KTX-산천 5대를 운행되고 있다.

(목포 이석호)

